

오피니언

정병석의 경제멘토링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서의 교육훈련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서 2012년도 연구교서를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일자리 창출방안이다.

미국은 연구개발 연구교서를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일자리 창출방안이다.

그래서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제안하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보자.

이러한 제안에 여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이 주도하는 시대에 웬 제조업 육성인가.

기업의 근로자 교육훈련을 지역의 대학에서 담당하자는 제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제조업은 오바마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아직도 경제의 근간이며 많은 고용창출 여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

앞으로 수요가 있을 첨단 기술분야, 지식기반 분야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선도

의 대학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기관으로 인정받고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로도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군 복무 중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왕성한 창업활동이 군부대에서 배운 기술지식과 문제해결능력 덕분이라고 한다.

그때서 체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을 시키는 부대는 훈련기간이 2~3년이 되더라도 학생들의 경쟁력이 매우 높다.

앞으로의 경계는 지식·정보·문화와 창의력이 중요한 성장 요인이 되는 시대이다.

근 부대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군사적 상황에서 직면하는 문제의 실질적 해결능력을 연마하게 한다.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지역 내의 인력의 질을 높이는 교육훈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한양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중고칼럼



일담

어느 사람이나 그러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백련사 또한 옛 선인들의 자취가 남다르다.

동안 읍매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며 아암은 굳이 대홍사로 떠난다.

편지를 쓰고 싶다

어지면 아쉬워 그리워하다 편지로 정을 나누었다.

지금 편지 쓰는 것이 잊혀져 가는 시대다.

어때 한양에서 통역관으로 네덜란드 출신인 박연(본명·안 벨테 브레이) 내러왔다.

기고

나는 학생 뺨 때리는 교사다



유순남

필자는 짧은 날 7년을 교단에 섰다가 최근 다시 교단으로 돌아온 기간제 교사다.

“쌤, 잘못했습니다. 엉겁결에 욕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다.

그 말이 있을 후부터 그 아이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다.

요즘 아이들은 입에 욕을 달고 산다.

공직자 부정 부조리 분노... 더는 용납 못한다

최근 공직자의 부정 부조리와 금품수수, 뇌물 청탁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그나마 좀 줄어든 것 같다. 그런데 이런 하위직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뇌물이 오갈 만한 부서와 기관을 감시하고 만들어 둔 고위직 감독기관, 그 감독 기관의 최고위직 간부들이 저지르는 뇌물 수수 사건을 보면 국민은 정말 속이 뒤집히고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분노가

차오른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 청탁 방지법에 대해서 알 것이다.

실로 참회하기 짝이 없다. 작년에 이미 국제투명성기구라는 곳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조사대상국 183개국 중 43위를 차지했다.

시설

'절반 성공' 이룬 여수박람회의 새로운 과제

여수세계박람회가 오는 12일로 93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한다.

성공 개최의 척도로 볼 수 있는 관람객 수, 전문가 평가, 주제 구현 등 3대 요소를 모두 충족했다는 평가다.

여수박람회의 성공은 무엇보다 여수 시민들의 헌신적 노력과 전남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수박람회는 해양과 연안가치의 재인식, 해양 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등 박람회 개최 취지를 충분히 살렸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이제 12일로 93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한다.

하지만 초기 박람회장 운영 미숙에 따른 관람객 불편과 특수 실종에 의한 지역경제 위축, 뒤늦은 관람객 유인책 마련 등은 재발해서는 안 될 시행착오임이 분명하다.

여수박람회는 이제 끝이 아니다. 박람회장 사후활용은 앞으로 박람회를 30년 동안 이끌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비현실적 기초생활수급제 개선 시급하다

울 들어 광주에서 모두 2300여 세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역 각 자치구에 따르면 울 들어 수급 중지된 세대는 동구 136, 서구 666, 남구 412, 북구 522, 광산구 571 등 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김모(78) 할아버지는 아들의 소득이 지원 대상 기준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의 반환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 최모(78) 할머니도 최근 관계단절 아들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지원이 중단됐다.

無等鼓

"어디로 가고 있었나?" "남가사기(鄭可朔其·나가사기)입니다."

대만에서 일본으로 가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상선이 1653년 8월 16일 태풍을 만나 제주도에서 표류했다.

조선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탓에 조선을 미신과 무지가 지배하는 아반의 세계로 묘사했다.

시간을 보냈다. 1666년 여수에서 일본으로 탈출하기까지 11년간 출근 남원·여수·순천·해남 등 전라도에서 생활했다.

여수엑스포에 참가한 네덜란드가 국가관을 엮었던 하멜표류기를 여수시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일로 하멜 일행은 강진으로 추방됐고 유배지인 전라도수영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하멜 표류기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